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의 과제와 방안 — 동아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춘영*

【목 차】

1. 서론
2. 학습자의 수준 차
3. 학급의 규모
4. 학과교양 '기초중국어연습'과의 관계
5. 수업의 내용과 방법
6. 평가의 방법과 방향
7. 강의평가
8. 결론: 해결방안

【초록】

이 글은 동아대학교 교양중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동아대학교 교양중국어를 담당한 5인의 교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교양중국어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동아대학교 교양중국어는 수준별 분반의 부재, 과도한 학급 규모, 학과교양 과목과의 차별화로 인해 수업의 내용과 방법에 제약이 있음을 고찰하였다. 또 절대평가를 선호하는 교수자 요구에 반하는 상대평가제도 실시, 외국어교육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강의평가 설문항목의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이에 단대별 상황에 적합한 분반 설계, 폐강기준 완화와 분반별 수강인원 상한선 조정, 특별학점 인증제도 마련, 절대평가로 전환, 강의평가 설문항목 개선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담당교수 5인의 교육경험을 리서치한 이 글이 국내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현황과 개선에 대한 실제 사례로서 교양중국어 교육의 활성화와 제도적 개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키워드】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현황, 교육과제, 해결방안, 동아대학교의 사례.

*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중국어학과 조교수 (cunying@dau.ac.kr)

1. 서론

교양중국어의 학습목표는 발음과 사성을 익히고 난 뒤 기본문형을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제약된다. 한 학기 15주간의 교육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중국어를 익히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수준별 분반 구성이 불가능한 탓이다. 담당교수의 전공역량과 교육내용 간의 격차도 너무 크기 때문에 담당교수의 자기효능감은 교양중국어의 교육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설령 일부 수강 학생의 중국어 수준이 상당히 높다 하여도 담당교수는 거의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그런 학생조차 발음과 사성을 익히는 데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교수가 힘들어 하는 것은 수준차가 심한 학생들을 한 학급에서 가르치는 일일 뿐이다.

현재 국내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크게 4가지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첫째, 교양중국어 교육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둘째, 교양중국어 교육방법 및 교수법 연구, 셋째 교양중국어 교재연구, 넷째, 교양중국어 학습자 분석 연구이다.¹⁾

중국의 국가위상이 높아지면서 대학교육에서 중국어 교과목의 수요도 증가하여 왔다. 이와 더불어 교양중국어 교과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의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 가운데 교양중국어 교과 운영의 과제 및 개선방안 연구로부터 대학 교양중국어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탐색해 볼 수 있다(김상호 2002; 정진강 2005, 2006; 장춘석 2006; 조득창 2008; 한희창 2011; 김선아 2014). 기존 연구에서 제기한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현장의 문제점은 수준별 분반의 부재, 과다한 수강인원, 강의의 전문성 부족, 교육방법과 평가방식이다. 이에 대해 수준별 혹은 전공별 분반 운영, 적정 수강인원을 보장하는 대학의 행정적 지원, 교수자의 다양한 교수법 개발이라는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동아대학교 교양중국어²⁾ 교육의 현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선행학습으로 인한 수강 학생의 수준 차, 학과교양과목 ‘기초중국어연습’과의 차별화, 수업방법 운영에 있어서의 특별한 제약, 평가와 강의평가의 특별한 기제, 그리고 행정적 문제해결 등으로 요약되는 동아대학교 교양중국어 교육의 현장은 많은 부분 국내 각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 공동의 문제이기도 하다.

담당교수 5명의 교육경험을 리서치 한 이 글이 국내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현황과 개선에 대한 실제 사례로서 교양중국어 교육의 활성화 제기와 제도적 개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 이효영, 「학습자중심 교양중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중국어학』, 제59집, 대한중국어학회, 2017.06, pp. 183-184.

2) 동아대학교의 교양중국어는 중점교양 영역의 ‘실용중국어’와 자유선택 영역의 ‘니하오중국어’(2014년부터 편제, 중국원어민 교사 담당)로 이원화되어있다. 이 글은 중점교양 영역에서 오랫동안 교양중국어 역할을 담당해 온 ‘실용중국어’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밝힌다.

2. 학습자의 수준 차

동아대학교의 교양중국어를 듣는 학생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³⁾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의 수강인원이 빠르게 늘었고, 예술대학과 스포츠과학대학의 수강인원도 완만하기는 하지만 증가 추세를 보인다. 반면에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은 현저히 감소하였고 의과대학은 수강인원이 거의 없는 편이다.⁴⁾ 인문·사회·경영계열의 단과대학이 중국어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예술·스포츠계열의 단과대학은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인문대의 증가 추세는 일어·독일어·프랑스어 등과의 경쟁관계에서 중국어가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⁵⁾ 특히 중등교육에서의 중국어 보급이 초보적이거나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교양교과의 하나인 중국어가 일본어와 경쟁관계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독일어나 프랑스어는 능가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의료 및 관광을 위해 이 지역을 찾는 중국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의대 학생들의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것은 진로가 분명하고 전공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크며 교양과목이수 설정이 독립적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문제는 교양중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동기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이 두 가지 동기가 화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첫 번째 그룹은 중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 교과목을 수강하게 된 학생이다. 이들 대부분은 취업이나 자신의 향후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 교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의식성 보다는 중국시장이 뜨고 있으니까 어쩐지 중국어 공부를 해두어야 할 것 같다는 식의 막연한 계기⁶⁾로 이 교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절대 다수에서 다수로 변하는 중이다. 아직도 다수를 점하기 때문에 수업의 포커스가 이들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그룹의 출현으로 이들이 입지가 좁아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두 번째 그룹은 상당수준의 의식성과 계획을 갖고 중국어를 배운 뒤 교양중국어를 수강하

- 3)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에서 제공한 2007년~2016년 교양중국어 수강생 인원내 근거한 개설 연도별 수강인원의 총합은 대략 다음과 같다.

<표1> 동아대학교 교양중국어 연도별 총 수강인원

개설연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원총합	199명	234명	321명	601명	578명	433명

- 4) 공과대학 수강생의 감소현상은 2013년~2015년까지 화학공학과에 공학교양으로 개설되었던 '실용중국어'가 2016년부터 개설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 5) 부산지역 중등교육의 중국어에 대한 수요는 서울경기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편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지역의 제2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일본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 6) 교양중국어를 순수교양으로 이수하는 비전공 학생들 대부분은 구체적인 학습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김은희, 「교양 중국어 학습자의 학습동기, 태도, 만족도에 관한 연구: J대학의 학습자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제46집, 중국인문학회, 2010.12, p.193 ; 이덕배, 「교양 외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문학』, 31집, 한국일본어문화회, 2006.12, p.237.

게 된 학생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한 학기 이상의 중국 어학연수 경험까지 갖추고 있는 이들이 이 교과목을 수강하는 이유는 상대평가 체계 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들 대부분의 중국어 실력은 교양중국어 수업에서 얻어갈 것이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들은 부담스러우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담당교수 입장에서는 이들을 무시하자니 강의평가가 문제이고, 부담을 벗어나자니 수업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이다. 더욱이 이들 모두는 수업에 참여하기보다는 수업을 구경하는 쪽에 가깝다. 이미 중국어 일상회화가 가능한 수준을 갖춘 이들은 자기가 아는 사실을 담당교수가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구경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편하게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서 이 교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담당교수가 그들과 첫 번째 그룹과의 상호작용을 권하기가 쉽지 않다. 들을 필요가 없는 학생과 들어야 하는 학생이 공존하는 교실 상황은 불합리의 극을 향해 나아간 상태다. 특히 중국어학과 학생들의 수강이 많은 인문대 분반과 선행학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영대와 국제학부의 분반이 이 같은 현상이 가장 심하다. 선행학습자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은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고등학교가 많아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된다. 이들의 중국어 수준은 대체로 교양중국어를 한 학기 수강한 학생의 수준과 비슷하다.

교양중국어 교육의 일탈과 방법 부재를 낳고 있는 학생 간의 수준 차는 담당교수가 수준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수록, 난감한 상황에서 초보자를 가르치는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학생 수준의 차이를 파악한다고 해서 발음과 사성에서 시작하는 교양중국어 수업내용의 전개가 달라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동아대학교는 세 곳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어 학습에 대한 자질이 불균등할 수밖에 없는 대학 간의 조합으로 교양중국어가 개설되고 있다. 클래스 내의 학생 간 수준차가 불합리한 분반 조합으로 인해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동아대학교 교양중국어 분반은 인문대·예술대·스포츠대가, 사회대·경영대·중국일본학부가, 공과대·자연대·생명과학대·건강과학대가 함께 수강하는 상황이다. 사회대와 경영대, 자연대와 생명과학대 학생의 교양중국어 학습자질이 비슷하다고 상정한다 해도, 여타 대학 간의 결합은 대학별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이다. 특히 인문대와 예술대·스포츠대를 묶어놓은 분반은 인문대 학생에게 육상경기로 체대학생과 경쟁하라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모든 교양과목이 이런 식의 조합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교양중국어만 독립적으로 개설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분반 내의 수준차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의 중국어 수준을 먼저 파악한 뒤 수준별로 상대평가하는 방법⁷⁾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진실한 협조가 없는 한 불가능하며,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한 학생들의 연출에 역이용될 여지가 크다.

7) 정진강, 「대학 교양중국어 교수/학습의 활성화 방안」, 『중국어문논역총간』, 제17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06.01, p.277.

3. 학급의 규모

동아대학교의 교양중국어는 한 학기 3학점 3시간으로 편제되어 있다. 새 단어와 문법을 학습하고 본문을 읽고 해석하고 암기하며, 문제풀이로 응용력을 기르는 이 과정은 주 3시간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담당교수는 한 학기 15주 교육으로 편제된 교재를 시수에 맞추어 시수부족의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는 학급의 규모이다. 이 수업을 통한 본문암기와 응용은 중국어 기초과목 담당교수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학급규모인 20명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 극대화된다.⁸⁾ 최근 몇 년의 교양중국어 분반별 수강인원을 보면, 대부분의 분반에서 인원이 20명을 초과하여 교사가 힘겨움을 느끼게 하는 규모이다.⁹⁾

<표2> 동아대학교 교양중국어 학급규모 현황

개설연도	과목	분반 총수	20명 초과 분반
2013년	실용중국어	8개	7개
2014년	실용중국어	7개	6개
	니하오중국어	10개	9개
2015년	실용중국어	8개	6개
	니하오중국어	10개	6개
2016년	실용중국어	6개	3개
	니하오중국어	9개	6개

동아대학교는 캠퍼스가 세 개로 나뉜 탓에 수강인원의 조절이 불가능한데다 대학 간의 조합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관계로, 교양중국어 수강인원의 합리적인 조절은 주로 학과의 노력에 의존하는 정도에 그친다.¹⁰⁾ 학생들이 캠퍼스를 이동하면서까지 수강인원이 적은 중국어 분반을 찾아다니지 않는 상황에서는, 들쭉날쭉한 학급규모를 해결하기 위한 교무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외국어 강좌에 한하여 한 클래스의 수강인원은 30명 이하로 조절하고, 주간 15명, 야간 7명 정도로 폐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¹¹⁾ 학급의 규모야말로

8) 박덕준, 「4년제 대학의 중국어 교육체계의 구축에 대한 모색」, 『중국언어연구』, 11권, 한국중국언어학회, 2000.12, p.9; 김용운·김자은, 「부산지역 4년제 사립대학 중국어 기초회화 교육의 조건과 특징」, 『인문학논총』, 제25집,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02, p.244.

9) 2014학년도부터 교양중국어에 ‘니하오중국어’가 자유선택과목으로 새롭게 편제되었지만, 대부분 분반에서 수강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상황은 여전하였다.

10) 예를 들어 2011년 1학기 승학캠퍼스 야간강좌 수강인원이 폐강 기준인원인 10명을 넘어서지 못하자 담당교수 간의 협의에 의해 주간 수강생의 일부를 야간으로 옮기게 한 것이 그 예이다.

11) 중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강학생이 5명 이상이면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수도 25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대학도 있다. 조득창은 이들 대학과 같은 교육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중국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들이 시행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학교 당국의 의지와 구조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득창, 「교양 중국어 교육의 활성화와 원어민 교원 운용 방안」, 『중국어문논총』, 제36집, 고려대학교 중국어문연구회, 2008.03, p.61.

외국어교육의 본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발음교정과 연습, 본문암기, 본문에 근거한 교수 학생 간의 대화, 나아가 3명 정도로 구성된 그룹연습 등의 수업은 30명 이내의 학급규모에서만 가능한 수업방법이다. 교양중국어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미 서술한 바 있는 학생 간의 수준 차도 수업의 진행에 선기 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선행학습이 이루어진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과 멘토관계를 맺으며 수업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학생 간의 교학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집중도 또한 상당 수준으로 제고됨으로써 교양중국어를 통한 일상중국어의 학습과 응용이 활발해질 수 있다. 수업분위기도 이 같은 학급규모의 운영을 통하여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원활히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적극성과 배려가 결합되어 이상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양중국어를 필수교양으로 발탁하여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라대학교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대학은 기초필수교양의 세계화 영역으로 ‘SLP I·II’를 개설하고, 영어·일본어·중국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여 총 8학점을 이수하게 하고 있으며, 학급규모를 최대 2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각 외국어는 총 4학기에 걸쳐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 상당 수준의 외국어 실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신라대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은 교양중국어를 전체 중국어 교육과정의 어디에 위치시키고, 그것에 어떤 역할을 부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양중국어와 기초중국어회화, 비즈니스가 가능한 중국어 수준의 확보 등을 일원적으로 엮어내기 위해서는 30명 이내의 학생을 학급규모로 하는 외국어 교육의 실천이 필요하고 또한 시급하기 때문이다.

4. 학과교양 ‘기초중국어연습’과의 관계

동아대학교는 교양중국어 외에 중국어학과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과교양 ‘기초중국어연습’을 개설하고 있다.¹²⁾ 3시간 3학점으로 운영되는 교양중국어와 3학점 6시간으로 운영되는 ‘기초중국어연습’은 중국어 학습이 전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중국어 수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수업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기초중국어

12) 동아대학교 중국어학과 전공교과목은 학과교양, 전공필수, 전공선택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학과교양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3> 동아대학교 중국어학과 학과교양 교과목

구분	교과목	학년	학기	학점	시간	
					이론	실습
학과교양	중국어와한자	1	1	3	3	
	기초중국어연습1	1	1	3		6
	영화와중국	1	2	3	3	
	기초중국어연습2	1	2	3		6

연습'은 일주일에 2시간씩 세 번 6시간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방법의 시도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외국어 교육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활용연습시간이 충분히 확보된다. 이는 수강인원이 거의 고정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교양중국어는 주 3시간 수업을 통해 외국어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다 이상적이지 않은 학급규모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수강학생의 수준 차 등으로 인하여 수업 분위기가 자체가 '기초중국어연습'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학과는 교양중국어와 학과교양과목 '기초중국어연습'과의 연계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교양중국어를 학습하고 난 뒤에 '기초중국어연습'을 학습하는 관행은 형성되지 않고 있지만,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중국어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양중국어와 학과 교과과정의 연계는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고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두 교과목은 발음과 사성을 가르치는 데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수강생들의 동기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학과교양 '기초중국어연습'은 적극성과 능동성으로 차 있지만 교양중국어는 두 가지의 동기가 공존하기 때문에 타과 학생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수업의 전개가 불가피하다. 중국어학과 학생에게 교양중국어는 '기초중국어연습'을 예습하는 단계에서 바로 그 교과목의 내용을 수업 중에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초중국어연습'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시수가 집적되면서 거기서 혼란된 내용의 차이가 수업에서의 간극을 더 벌려놓게 된다.

교양중국어 담당교수는 이 두 과목의 연계적인 층차가 거의 학기 초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다. 발음과 사성에서 함께 출발된 두 교과목은 3주 정도의 학습과정을 거친 뒤에는 명백한 상하위 과목으로 구분된다.

이런 상하위 과목으로의 분화과정과 실질적인 연계체계에도 불구하고 교양중국어 담당교수가 이 같은 연계의 구성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편은 아니다. 교양중국어와 학과교양 '기초중국어연습'을 함께 수강하는 학생들은 중국어학과 학생에 한정되는데다가 이 두 교과목은 똑같이 발음과 사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2,3주에 걸친 수업내용의 중복은 어쩔 수 없다. 중국어학과 학생의 입장에서 이 수업은 상대적인 수월성 속에서 쉽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교양중국어 수강을 선호하게 된다. 중국어학과 학생 대부분은 이 2,3주가 지난 뒤에는 교양중국어에 대한 부담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들 대부분은 '기초중국어연습' 과정에서 교양중국어 이상의 중국어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교양중국어 학점취득에 있어서의 걱정거리가 있다면 중국어학과 학생 간의 상대평가이다.¹³⁾

교양중국어와 '기초중국어연습' 수업을 차별화하는 것은 타과 학생들이 중국어학과를 복수전공·부전공하기 위한 선행학습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우선, 교양중국어는 수강생의 전공, 성향, 수강동기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각

13) 이 부분은 많은 대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다. 장춘석은 타 학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양중국어의 분반을 일반 교양과목 학생과 중국어 전공 학생을 분리해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춘석, 「교양 중국어 교육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제34집, 중국인문학회, 2006.12, p.206.

자의 개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특히 중국어학과 수강생이 많은 인문대 수업의 경우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비전공자들을 배려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기초중국어연습’은 학생 모두가 동일한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기 때문에 전공지식에 대한 요구가 큰 편이므로 담당교수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둘째, 교양중국어는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교양 외국어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전적인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해당 문화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 단어나 문법을 주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¹⁴⁾ 반면 ‘기초중국어연습’은 전공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므로 발음과 사성을 반복 훈련함으로써 읽기에 있어서의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셋째, 교재의 선택에 있어서도 차별화해야 한다. 교양중국어는 간단하고 쉬운 예문을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편찬된 교재를, ‘기초중국어연습’은 기본문형의 중국어문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재를 선택해야 한다.

교양중국어 교과목의 학습내용은 사실 학생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양중국어 교육에 대한 담당교수의 의욕도 중요하지만 이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도 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이다.¹⁵⁾ 따라서 교양중국어 교과목의 운영은 학생수준에 따라 매해 분반별로 다소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¹⁶⁾

5. 수업의 내용과 방법

교양중국어는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 수준에 따라 수업의 내용이 결정된다. 동아대학교 교양중국어의 수업내용은 중국어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중국어학습의 의욕을 지속시키는 수준으로 제약된다. 따라서 이 같은 수업목표에 따른 다양한 수업방법의 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양중국어는 발음, 읽기, 본문암기, 활용 등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발음과 읽기는 필수이고 본문암기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며 학생의 수준에 따라 기본문형을 활용하는 단계에 이른다. 배운 단어와 문형들을 조합하여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은 이미 본문암기가 끝난 의식성과 계획성을 지닌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중국어는 발음과 성조가 관건이다. 알파벳 읽기에 익숙해져있는 학생들에게 한어병음의 특징, 성모와 운모의 특별한 결합구조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동아대학교의 교양중국어 담당교수 A는 한어병음카드를 만들어 칠판에 붙이면서 성모와 운모 결합의 시각적 학습 효과를 꾀하였다. 성조학습은 주어진 시간 내의 반복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내는 높낮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은 본문을 읽어나가는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14) 이덕배, 「교양 외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문학』, 31집, 일본어문학회, 2006.12, p.244.

15) 대학의 외국어 교육의 많은 문제점이 교과과정상의 제도와 교재 등의 문제 외에 수강생들의 참여 의지와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창교, 「교양 중국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실태와 대안」, 『동아문화』, 제36집,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98.12, p.180.

16) 부산대학교의 경우, 자과가 개설한 교양외국어에 자과 학생이 이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타과 학생들이 교양중국어를 수강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도록 운영하고 있다.

반복되어야 한다. 읽기는 의미에 따라 끊어 읽고 자신의 발음을 대상화하면서 그것을 원어민과 비교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담당교수B는 발음과 성조 학습이 상대적으로 더딘 학생들을 위해 쉬는 시간 혹은 수업이 끝난 후 일대일 지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정확한 발음을 강조하되 교양중국어에서 학생들의 발음을 지나치게 꼼꼼하게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어 학습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중국어 발음이 다른 언어에 비해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발음연습 자체가 지루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발음이 다소 정확하지 않더라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회화를 병행하며 발음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¹⁷⁾

본문읽기가 끝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켜 외우고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제약을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양중국어의 최대 학습목표는 제시된 문장을 암기하고 학생들이 스스로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에서 활용연습을 하는 것이다. 본문의 암기는 본격적인 말하기로 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서, 수업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¹⁸⁾

교양중국어의 자기화 수준을 중국어 교과과정이라는 수직적인 측면에서 제약하는 것이 ‘기초중국어연습’이라면, 그것을 수평적인 측면에서 제약하는 것은 일반 교양과목들이다. 실제로 교양중국어는 다른 교양과목에 비해 학생의 부담이 큰 편에 속한다. 한 주만 결석해도 진도를 맞추기가 힘든 제2외국어회화 교과목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수업 이외의 시간에 매번 따로 예·복습을 하게 하는 것도 무리이다. 교양중국어가 본문암기 이상의 활용과 작문으로 나아가기 힘든 것은 형식적으로는 수직적인 제약 때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평적인 제약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현실적인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다른 교양과목과 대등한 수준의 학습량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당교수B는 외국어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학생 위주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개개인이 수업시간 중 한 마디라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일대일 대화를 시도했고, 본문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내용을 중국어로 묻고 답하게 하거나 중국어 문장을 들려주고 그것을 한국어로 옮기게 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한 학생이 대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학생이 대화를 이어가는 식의 릴레이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기했다.

교양중국어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결국 관건은 수업방법이며 방법의 중심은 분위기이다. 이 수업은 학생들의 적극성과 능동성이 필수적이며, 교수의 교재선택과 흥미로운 수업방법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교재는 수업방법을 제약하고 수업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교양중국어의 교재는 총 15주 교과과정과 학사일정에 맞게 총 10과에서 12과 정도가 적당하다. 본문에 사용되는

17) 수강생이 50~60명에 이르는 분반의 경우, 개별적인 발음지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담당교수D는 ‘발음시험’이라는 형식을 통해 수강생 개인이 발음문제를 보강하도록 유도했고, 담당교수E는 학생들에게 교재의 본문을 읽고 녹음해오게 과제를 내주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확인하는 방식으로 발음과 읽기 향상을 도모하였다.

18) 설문에 응한 동아대학교 교양중국어 담당교수 5인 모두 본문암기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수업과정에서 반복학습을 통해 암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응답하였다.

문장은 되도록 짧고 간단하면서 실생활에 유용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려운 문법 설명 등은 최대한 배제하고 중국과 중국어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편집되어야 한다.¹⁹⁾ 담당교수A는 당일에 배운 중국어 문장과 관련한 시각자료를 활용하거나, 학급 내에 중국학생이 있을 경우 교재 속 상황을 한국학생과 실제로 연출하게 함으로써 수업의 흥미와 긴장감을 높였다. 담당교수C는 즉석 그룹핑을 통해 학생이 각각 본문 속 인물로 분해 중국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방식은 교재의 중국어문장이 다소 간단하고 외우기 쉽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자유롭고 활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연출하는 수업분위기가 적극적이어야 한다. 서로 간의 친밀감이 만들어지면 틀려도 좋으니 무엇이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담당교수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바탕으로 학생이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담당교수C는 단어설명 뒤 바로 개인별 혹은 조별 빙고게임이나 스피드게임을 실시하여 단어를 습득하게 한 뒤 본문읽기와 해석을 진행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시상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의지를 제고시키고자 했다. 담당교수D는 학생들이 수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리토킹’을 설정하고 2인1조 혹은 4인1조로 구성 후 짧은 문장이라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중국어에 대한 훈련 외에 중국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는 소재들을 수시로 소개하는 것도 재미있는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담당교수B는 한 학기에 두 번 학생들에게 중국 음식과 경극 등 중국문화를 소개하는 짧은 동영상과 함께 시청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유지시켰고, 담당교수C는 간단한 중국노래 한 두 곡을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²⁰⁾ 담당교수E는 중국과 중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중국의 이슈를 다룬 다큐멘터리나 흥미로운 영화 등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켰다.

동아대학교 교양중국어 담당교수는 청화식 수업을 위주로 역할극을 실시하고 한어병음 학습에 중국어 노래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켰다. 소집단을 중심으로 실시한 게임과 프리토킹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활기찬 수업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과다한 수강인원을 수준별로 운영할 수 없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참여와 협동을 유도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²¹⁾

19) 동아대학교의 교양중국어는 총 12과로 구성된 교재를, 학과교양 ‘기초중국어연습’은 총 15과로 구성된 교재를 사용하였다.

20) 반면 중국어 노래나 영화를 감상하는 등 중국어학습 이외의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중국어 초급단계에서는 발음연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발음교정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족한 주당 시수와 과다한 수강인원과도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김상호,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의 목표와 그 실천 방안: 대전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38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2.11, p.429.

21) 한희창은 수준별 분반의 부재, 과다한 수강인원이 대학 교양중국어의 공통적 문제점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동학습을 제시하였다. 협동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팀 구성과 팀내 과제 분담 관련 팁을 제공하고 협동학습을 활용한 초급중국어 수업모형도 제안하였다. 한희창, 「교양중국어 교과서의 협동학습 활용에 관하여」, 『중국어언어연구』, 36권,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11. 07, pp.435-437.

6. 평가의 방법과 방향

동아대학교의 교양중국어 담당교수는 수업의 본질이 연습과 복습을 위한 평가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수업방법 속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평가방법 중에서도 수시평가는 수업방법의 일부가 되는 연결고리라고 본다. 예를 들어 담당교수A는 “수시평가는 수업의 방법적인 측면과 평가를 연결하는 관절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그것은 수업방법의 핵심을 이루기도 하고, 나아가 평가의 관건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수시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교양중국어 수업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담당교수C는 “교양중국어에 있어서는 정시평가나 수시평가 모두가 수업방법의 일환으로 기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평가가 수업방법의 한 부분으로 기능할 때 수업 효과가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담당교수E 또한 “수시평가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현재 학습상태를 테스트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특히 적절한 긴장에 노출되지만 정시평가보다 안정적으로 평가를 대하기 때문에 정시평가를 대비하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이 수업의 관건은 본문읽기와 독해, 암기, 활용이다. 한어병음을 정확하게 읽는 것부터 인사와 자기소개, 숫자읽기, 날짜와 시간 말하기, 물건사기 등의 말하기로 연결되는 교양중국어는 수업 자체가 거의 수시평가와 함께 진행된다. 담당교수가 설명을 가한 이후 활용연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별·그룹별 테스트, 게임이나 역할극 등으로 표현되는 수업방법은 그 대로 수시평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담당교수B는 평가의 20%를 수시평가에 할애하여, 발음, 본문읽기, 단어와 필수문형에 대한 수시평가를 한 학기동안 총 4회 실시한 바 있으며, 담당교수D 또한 단어암기와 본문읽기 위주의 수시평가를 3~4회 실시함으로써 수업방법과 평가를 병행하였다.

수시평가가 수업의 일환이라면 지필고사로 치러지는 정시평가는 종합성·공정성·변별성에 근거하여 주요한 평가수단으로 인식된다. 읽기와 본문암기 등이 훈련된 이후에는 주로 자신이 듣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쓰는 것으로 평가하는 단계만이 남게 된다. 담당교수C는 “어학의 점진적인 향상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암기와 실습이 수업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되고 그 결과가 적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시평가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시평가의 의미는 배운 것을 총체적으로 복습하고 그것을 글로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담당교수A는 “평가의 객관성과 변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수시평가의 단점을 정시평가를 통해 메꾼다”고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양중국어에서의 수시평가는 적절한 수강인원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읽기부터 말하기, 암기와 활용에 이르는 평가의 과정에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정된 시간 안에 이 모든 평가의 과정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0명 이내의 수강인원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 개개인에 대한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수업방법도 교수의 일방적이고 지시적인 진행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수강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시평가의 횟수는 줄어들고, 이에 따라 학생이 참여하는 식

의 수업방법 운용 또한 제한된다.

동아대학교 교양중국어 담당교수는 전반적으로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선호하는 편이다. 사실 중국어 학습은 상대평가에 맞는 과목이 아니다. 교양중국어는 기능과목으로서 사고력의 제고 보다는 중국어를 읽고 말하는 능력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과목이다.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표현이 가능하면 좋은 학점이 나가야 하는 교과목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상황에서 일주일에 3시간 13주간의 연습으로 50명이 넘는 학생들을 8단계로 상대평가 한다는 것은 그다지 현실에 부합하는 평가가 아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성적은 최하위 그룹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비슷한 수준이다.

교양중국어의 교육목표는 발음과 성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사하는지, 또 기본문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필고사로 실시되는 정시평가가 수시평가보다 실질적으로 더 유효한 상대평가의 잣대가 된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배운 외국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평가받는데 있어서 상대평가는 이러한 교육목표의 핵심을 벗어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상대평가가 힘든 상황이 연출될 때가 많다. 다시 말해서 제도가 교육현장의 이상을 왜곡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또 선행학습자의 수강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평가는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양중국어 강좌가 활성화될 수 없는 요인을 제공하게 된다. 선행학습자 비율 혹은 중국어 전공학과 학생의 비율이 수강인원의 20%를 넘는 분반에서는 총점 90점 이상을 획득하고도 A를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되었다.

이 같은 현실 속에 있는 담당교수는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체계보다는 상대평가를 위해 학생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됨으로써 교육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기 쉽다. 따라서 교양외국어 과목은 일정한 교육목표에 도달한 학생들이 정해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절대평가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7. 강의평가

동아대학교의 강의평가는 객관식 설문과 주관식 서술로 구성되어 있고 객관식 설문의 결과만 평가점수에 반영된다. 객관식 설문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4> 동아대학교 강의평가 설문항목

(1) 강의계획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실행되었다
(2) 교수는 강의시간을 준수하였다
(3) 강의는 해당분야의 지식과 내용을 폭넓게 다루었다
(4) 교수는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높였다
(5) 이 강의를 통해 해당 분야의 지식과 능력이 발전하였고 관심도 깊어졌다
(6) 중간 강의평가에서 건의한 사항이 개선되었다
(7) 교수는 휴강 시 보강을 이행하였다
(8) 교수는 출결관리를 철저하게 하였다

동아대학교 강의평가는 강의계획에 따른 강의진행, 강의준비, 강의내용, 학생참여유도, 학생 강의만족, 강의피드백, 강의성실성 등을 포함한 8개 문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설문내용은 교수자의 강의능력을 평가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반면 학습자의 교육목표에 따른 학습이행 및 실제 학업의 성취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²²⁾

특히 교양중국어는 강의의 실질적 진행이 수시평가와 연동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른 교과목과 달리 강의 과정에 대한 일원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편이다. 설문내용 자체도 교양중국어의 교육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문항으로 동아대학교의 현장에 맞고 교과목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설문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모든 과목에 적용 가능한 다소 모호한 설문항목은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수-학생 간의 소통과 학생이 느끼는 성취도를 점검하는 실제적인 항목들로 수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의계획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실행되었다”는 항목은 이론이 아닌 실습에 치중하는 어학교과목에 부합하도록 “강의는 전체적으로 흥미로웠으며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수정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는지 물을 필요가 있다. “강의는 해당분야의 지식과 내용을 폭넓게 다루었다”라는 항목 또한 “강의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학생과 충분히 교감하였다”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이 강좌의 수강인원은 적정한 수준이었다”는 항목을 추가하면 외국어강좌의 효과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강대학교의 강의평가항목은 평가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주관성이나 모호함을 비껴간 실례라고 생각된다.

<표5> 서강대학교 강의평가 설문항목

(1) 해당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 시켰는가?
(2)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잘 설명하였는가?
(3) 학생들의 질문을 적절히 수용하고 성실히 응답하였는가?
(4) 학생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였는가?
(5) 강의계획서에 소개된 내용을 충실하게 다루었는가?
(6) 강의 내용의 전달이 명확하고 효과적이었는가?
(7) 사용된 강의 교재 및 참고자료(참고도서, handout, 시청각자료, 웹자료 등)가 학습에 적절하였는가?
(8) 시험, 퀴즈 과제물에 대한 feedback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9) 전반적으로 교수의 강의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10) 다른 학생들에게 이 과목 수강을 권하고 싶은가?

22) 이정기는 대학의 강의평가는 교수자의 흥미로운 수업진행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교수자가 계획한 교육목적에 부합한 교육활동의 수행과 학업성취도 측정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정기, 「대학 강의평가 문항 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7권제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12, p.254.

학습자의 관심 자극, 교사-학생 간의 래포 형성, 수업활동 구성, 강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문항임을 알 수 있다. 학습목표에 대한 학생의 발전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과 학문 영역별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보충한다면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의평가에 주관적이고 우연적인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대학교의 교양중국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는 선입견이 전임교수 사이에 만연한 실정이다. 앞에서 거론했던 많은 요인들로 인해 수업 중에 만날 수 있는 변수들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도, 중국어 초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중국어는 다른 중국어강의에 비해 강의준비 등에 대한 수고가 상대적으로 덜한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의평가의 결과에 따라 강의의 연속을 보장받고 있는 현 체제하의 시간강사들은 “이런 교과목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기 쉬운” 교양중국어 강의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강의평가 문항의 변경과 새로운 평가방법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다.

8. 결론: 해결방안

동아대학교의 교양중국어 교육은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한 선행학습자의 수강신청을 제한할 방안이 없고, 단과대학 간의 불합리한 조합으로 분반과 학급규모가 결정되며, 수업의 내용을 학과교양 ‘기초중국어연습’과 차별화해야 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 평가 또한 수시평가에 의존하면서도 상대평가의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가장 교육하기 쉬운 교과목이라는 편견 때문에 담당교수의 관심이 수업보다는 강의평가에 기울게 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제도적인 배려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학생 수의 감소와 정원조정의 분위기는 중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중이다. 따라서 동아대학교 교양중국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아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세 캠퍼스의 상황에 적합한 교양중국어 분반을 설계해야 한다. 특히 제2외국어에 대한 자질이 불균등할 수밖에 없는 단대별 조합 운영은 분반 내의 학생 간 수준차를 증폭시키는 원인이다. 분반 내의 수준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대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인문대·예술대·스포츠대 분반은 이런 제도의 확립이 매우 절실하다.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끼리 경쟁하게 해야 평가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르지 않은 학급규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과목에 한해 폐강기준을 현재 20명 미만에서 15명 미만으로 낮추고, 분반 상한선을 최대 30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한 선행학습자의 교양중국어 수강은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수준별 분반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힘든 상황에서는 학생부에 고등학교 선택과목 이수이력을 표기하게 하거나,²³⁾ 신HSK·CPT 등 중국어능력시험의 일정 수준을 교양중국어 이수로 인정해

주는 특별학점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줄여나가야 한다.

교양중국어의 평가는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더 적합하다. 일정한 학습목표에 도달했을 때 정해진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가 실시된다면, 학생들의 성취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음 중국어 학습단계로 넘어가고자 하는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행정 당국은 교과목에 맞는 강의평가 항목을 확립해야 한다. 과목의 특성을 무시한 일괄적인 평가 항목 보다는 교양중국어 교과목에 부합하는 항목들로 강의평가가 이루어져야 담당교수의 효과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동시에 담당교수 또한 현 상황에서 학습자를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교양중국어의 문제점을 교실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교수전략에 대한 탐색은 다음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상호,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의 목표와 그 실천 방안: 대전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38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2.11.
- 김선아, 「대학 교양중국어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인문학연구』, 47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02.
- 김용운·김자은, 「부산지역 4년제 사립대학 중국어 기초회화 교육의 조건과 특징」, 『인문학논총』, 제25집,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02.
- 김은희, 「교양 중국어 학습자의 학습동기, 태도, 만족도에 관한 연구: J대학의 학습자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제46집, 중국인문학회, 2010.12.
- 류창교, 「교양 중국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실태와 대안」, 『동아문화』, 제36집,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98.12.
- 박덕준, 「4년제 대학의 중국어 교육체계의 구축에 대한 모색」, 『중국언어연구』, 11권,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00.12.
- 박혜원, 「대학 교양중국어 수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04.
- 맹춘영, 「교양중국어 수업 중 노래 교육의 활용에 관한 소고」, 『중국언어연구』, 64권,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16.06.
- 손정애·황영희, 「대학교양중국어 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고찰-학습자의식분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02.
- 이덕배, 「교양 외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문학』, 31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06.12.
- 이정기, 「대학 강의평가 문항 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7권 제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12.
- 이지연, 「대학 교양중국어 수업방안 연구 - 주제중심교수법 활용 실례를 중심으로」, 『중국어교육과연구』, 제21호,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5.06.
- 이효영, 「학습자중심 교양중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중국학』, 제59집, 대한중국학회, 2017.06.
- 장춘석, 「교양 중국어 교육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제34집, 중국인문학회, 2006.12.
- 정진강, 「대학 교양중국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1)」, 『중국어문논역총간』, 제15집, 중국어문논역

23) 박혜원, 『대학 교양중국어 수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04, p. 153.

학회, 2005.07.

정진강, 「대학 교양중국어 교수/학습의 활성화 방안」, 『중국어문논역총간』, 제17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06.01.

조득창, 「교양 중국어 교육의 활성화와 원어민 교원 운용 방안」, 『중국어문논총』, 제36집, 고려대학교 중국어문연구회, 2008.03.

한희창, 「교양중국어 교과와 협동학습 활용에 관하여」, 『중국어언어연구』, 36권,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11.07.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大学教养汉语, 教育现状, 教育课题, 解决方案, 东亚大学校의事例		
	영문	Liberal Arts Chinese Language, Education Status, Educational Tasks, Solution Plan, The Issues of Dong-A University		
<div>Tasks and Solutions of University Liberal Arts Chinese Language Education : Focusing on the Issues of Dong-A University</div> <div>Lim, Chun-Young</div> <p>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s of liberal arts Chinese language course at Donga-A University and suggests some possible solutions. The survey asked five professors who are responsible for Chinese language course at Dong-A University to examine the perceptions and demands on this Chinese language course. Based on the learning goals of liberal arts Chinese language course at Dong-A University, which is composed of the basic pronunciation, four kinds of Chinese intonations and reading and understanding of basic sentence patterns, the problems were diagnosed by setting criteria such as the difference of students' level, the size of class, the differentiation of department's other liberal arts subjects, the method and direction of the assesment and lecture evaluation. Thus, we found out that the liberal arts Chinese language courses at Dong-A University have limitations in lecture contents and methods with respect to such factors as the absence of class classified by students' level, excessive class size and the differentiation of this course with other liberal arts subjects. We also considered issues where relative evaluation is preferred to absolute evaluation which is against the teachers' needs and lecture evaluation items of questionnaires which are not suitable for the situation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conclusion, such solutions were proposed as class design which is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of each collage, mitigation of closing criteria, and adjustment of upper limit of students per class, preparation of special credit certification systems, conversion of absolute assessment criteria, and improvement of survey items for lectures.</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임춘영 / 林春英 / Lim, Chun-Young		
	소 속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중국어학과		
	Em@il	cunying@dau.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1월 31일	심 사 일	2018년 02월 13일
	수 정 일	2018년 03월 18일	게재확정일	2018년 03월 23일